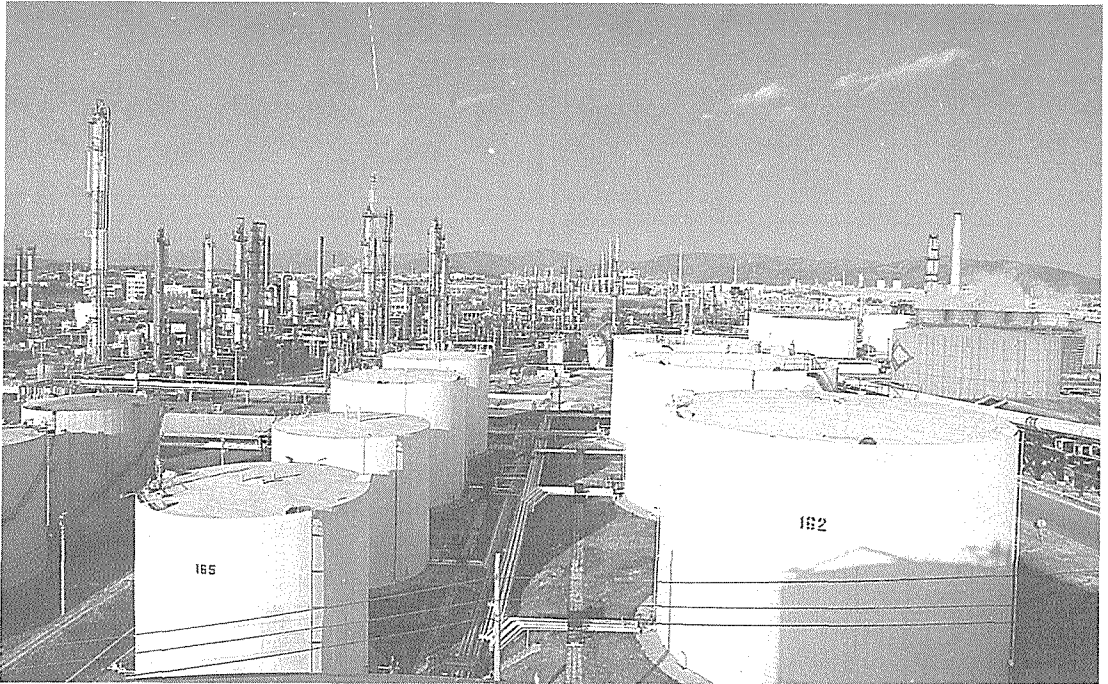


유공 공장을

견학하고

沈明輔

〈석유협회 업무부 업무과〉



고속버스를 타면서 약간의 흥분과 가슴 설레임을 느낄수 있었다. 하늘은 높고 푸른색에서 낮고 짙은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스산한 바람이 거리에 쌓여 있는 낙엽을 날리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 없이 변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油公의 울산콤플렉스로 가고 있었다.

차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변은 늦가을의 청취가 물씬 풍겼고 군데군데 모여선 코스모스들이 긴

목을 곧게 뻗고 하늘거리고 있었다. 옆으로 지나가는 산에는 가을꽃이 다시 한번 만발해 있었고 가을 길이가 덜끝난 눈위에서는 마지막 이틀간의 햇별이 아쉬운듯 농부의 손길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어릴적 내가 자라던 시골의 그 논두렁이 생각났다.

처음으로 울산땅을 밟았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처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고장난 신호등이었다.



아니 고장난 신호등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잠시 생각이 필요했다. 신호등이 있음직한 곳이나 로터리에서 모든 차들은 신호없이 자유로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신호등을 보니 모든 신호등의 불은 꺼져 있었고 그래도 차들의 물결은 잘 통행되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간혹 TV에서 본 외국의 신호등 없는 거리가 연상되었다. 아나운서는 그 나라의 교통질서를 연신 칭찬하며 우리나라의 교통문화현실을 개탄하곤 했었는데 분명 울산의 교통은 서울의 그것보다 한발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공장 정문에 다다르자 커다란 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빠른 고속버스였지만 울산까지 오는데 다섯시간 이상이 소요됐던 것이다.

홍보과장님의 안내를 받은후 공장견학이 시작되었다. 먼저 홍보관에 들러 공장을 소개하는 VTR을 보았다. 油公은 '62년 국내에너지 및 화학산업의 효시로 출발한 이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음은 물론 기초유분을 비롯한 유화제품의 생산, 공급으로 국내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석유개발을 비롯한 해외의 자원개발에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워 왔고 막대한 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미래에너지 산업에 적극 참여하여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화학 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2천년대에는 세계 일류수준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공장을 축소한 모형 구조물로써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후 차량을 통한 견학이 시작되었다. 공장견학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광활한 대지위에 거대한 모습으로 우뚝우뚝 서있는 건물을 보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원이 바로 여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유정제를 위한 상압증류탑, 나프타 분해시설, 윤활유 배합공장 등을 들었으며 최근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油公이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더욱이 이 거대한 시설 가동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공장 자동화로 인하여 극히 적은 인원으로만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실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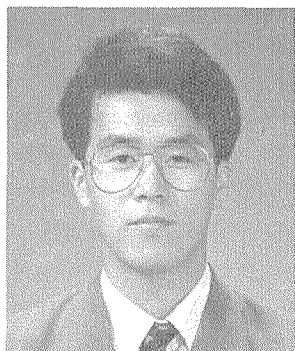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는 힘들었지만 세계적인 일류 석유회사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 정신을 발휘하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油公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비록 2시간에 걸친 짧은 견학이었지만 정유업계를 대표하는 油公을 방문하며 느낀점도 많았다. 나 자신이 정유업계와 함께 한지 얼마 안되는 일천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이길이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나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경험이 된 소중한 순간이었다. 나의 일이 정유업계의 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유업이라는 커다란 집을 짓는데 작은 벽돌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싶다.

끝으로 우리들의 견학을 위해 애써주신 홍보실 李用式 과장님과 바쁜 일과중에도 많은 설명과 친절환 안내를 아끼지 않은 최한수씨에게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장 견학을 끝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우리의 발길은 사뭇 가벼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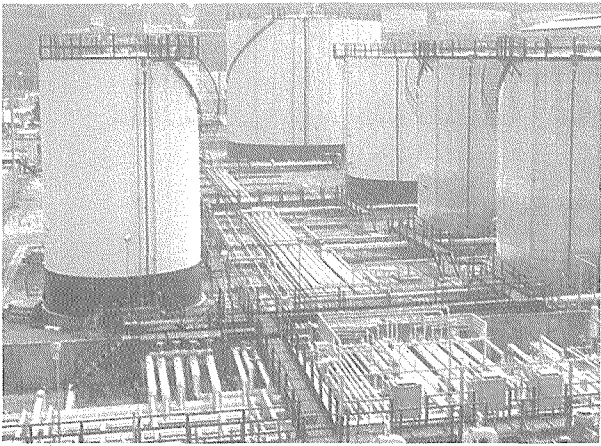
호남정유 여천공장을 돌아보고



李熙坤
〈석유협회 업무부업무과〉

회색 콘크리트의 숲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론가 떠날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석유협회에 입사한지 이제 겨우 두달이 되어 가지만, 이것 저것 업무를 배워가는 햇병아리 사원이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 때때로 사무실을 벗어나 푸르른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호남정유 麗川공장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책상 위에서 이론만으로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과정을 보고도 싶었고, 도대체 정유시설이란게 어떤 것인가 하는 호기심도 항상 있었다.

잠까지 설치고 아침 일찍 여수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들...

잠시 선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열차는 어느덧 남도의 땅을 힘차게 달리고 있었고, 이윽고 목적지 여천에 도착하게 되었다. 고향이 부근 光州이지만, 이곳 麗川 근방에는 거의 와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비릿한 바다내음과 구수한 사투리가 정겨움을 물씬 풍겨왔다. 가볍게 요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호남정유를 향해갔다. 공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친 무수한 공장들, 그리고 공장 주변에서 스며나오는 그 냄새들로 인하여 이곳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메카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공장정문에 도착하여 우선 그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문에서 그 전체를 짐작해 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반가히 우리 일행을 맞아 주시는 안내자를 따라서 우선 호남정유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보게 되었다. 막연히 그냥 휘발유등 석유를 만드는 그런 회사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한눈에 호남정유를 알아 볼 수 있었다.

1967년 럭키와 美國 *Caltex*의 합작으로 탄생, 6만 배럴의 규모로 시작하여 4차례에 걸친 확장으로 38

만 배럴의 국내 최대 정유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에너지 수요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호남정유의 사업내용과 공장 설명등 이모저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홍보물을 다 본후, 직접 공장을 돌아 보았는데, 그 규모의 방대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협회에서 원유 추천업무를 하는 관계로 많은 과정중에서 특히 원유 정제 과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 보았다. 무수한 파이프 라인, 우뚝 솟은 탑들, 한눈에 인간의 작품이 아닐 듯 하였다. 원유도착에서 공장내의 여러 사항까지 직접 보면서 또 설명까지 곁들여 들으니, 한방울의 검은 물이 황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였다. 특히 방향족 생산시설의 중앙조정실의 자동화 시스템과 커다란 저유시설들, 그리고 이 거대한 공장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천명 남짓하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장치산업이 그다지 많은 인원을 필요치 않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공장 대부분이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들 중에서도 직원들의 애사심도 느낄 수 있었다.

한시간에 걸쳐 공장 견학을 마쳤다. 전 과정을 모두 빠짐없이 보고 싶었지만 서로의 바쁜 일정이 허락치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공장을 나와 푸른 바다와 오동도를 한바퀴 둘러보고 나니 주위는 어느덧 어두워지게 되었고, 부모님이 계신 光州行 버스에 몸을 실었다. 麗川을 빠져 나오면서 차창 밖을 바라 보았다. 거기에는 밤낮을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무수한 공장의 불빛이 있었고, 새하얗게 밤을 밝혀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석유화학산업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속에서 이제 겨우 발을 내딛은 햇병아리 「석유맨」이지만 국가 기간산업에 관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 속에서 커가는 내 모습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을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과, 도와주신 호남정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남녘 광양만의 물결은 참 푸르고 맑았었다. ♣